또래와 뚜리

최인실 지음

대웅출판사 / A5신 / 192면 / 2300원

또래와 뚜리는 산골 머치마을에 사는 산촌어린이. 또래와 뚜리가 다니는 머치분교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신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또래반 친구의 미남인 일두, 산골소년답게 입이 무겁고 생각이 깊은 공몽돌, 고집센 일두 동생 이두, 정의파 자매인 정양란과 정양미 등등 장난꾸러기지만 정 많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어린이들의 세계가 산골마을을 배경으로 순박하게 비쳐져 있다.

「찰거머리와 슬그머니」「제사놀이 하던 날」「미국 손님」 등 9편의 짤막짤막한 이야기가 흥미로운 사건전개와 함께 엮어지면서 교훈을 남겨준다.

알쏭달쏭 과학여행

홍석진 지음

예림당 / A5신 / 238면 / 2500원

과학의 기초지식을 재미있게 풀이한 책. '과학'하면 으레 딱딱하게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흥미진진하게 과학의 세계에 접할 수 있도록 한가지 질문과 답변식으로 엮었다.

'물구나무를 서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지문은 사람에게만 있다' 등 인체에 관한 내용과, '곤충들도 심장이 있을까' '나비는 어떻게 꽃을 찾아가나' 등 동물에 관한 것, 그리고 '연기의 정체는 무엇' '지구에 공기가 생긴 것은 언제' 등등 일상생활과 지구우주식물에 관한 궁금증을 흥미롭게 가르쳐주고 있다.

마파람 돌개바람

윤영석 지음

신원문화사 / A5신 / 226면 / 2300원

서울 온곡국민학교 5학년 어린이가 쓴 아동소설이다. 친구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며 공부했던 의정부에서의 학교생활과 달리, 친구들을 서로 '경쟁자'로만 생각하는 서울의 국민학교로 전학온 뒤의 느낌을 담았다.

주인공 김용철은 약한 어린이를 돕고 나쁜 사람을 물리치는 초인적인 소년. 그를 따르며 항상 도움을 주는 단짝 여자친구 김정현. 불량학생이었다가 용철과 화해하고 친구가 된 강학길, 그리고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는 양종필선생님 등등이 여러 사건을 통해 한데 어우러져 등장한다.

돈의 여행

이슬기 지음

지경사 / A5신 / 226면 / 2500원

우리의 일상생활은 거의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어려서부터 경제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겪게 되는 경제생활을 동화로 엮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경제상식을 갖게 하고 있다.

만원의 딱지가 붙은 이 책의 주인공 '돈'이 세상에 나와 겪는 일생을 통해 경제의 구조를 밝히고 있는데, 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발달과정은 어떠했나,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 등등의 가르침을 흥미로운 이야기로 풀어나가고 있다.

아가입은 앵두

서정숙 지음

보육사 / A5신 / 130면 / 3000원

꾸밈없는 아이들의 모습을 리듬감 있게 담아낸 동요 · 동시집. 유아동요 17편과 유희동요 12편 등 모두 60여편의 시 속에 동심과 융합된 자연스러움이 스며 있다. 작가는 실제 유아들을 교육했던 경험에 비추어 율동을 지닌 다채로운 리듬을 어린이와 친근한 소재에 담아내고 있다.

아가 입은 / 앵두

엄마가 / 똑, / 한개 따먹어도
그대로 있고

아빠가 / 똑, / 한개 따먹어도
그대로 있고.

「아가 입은 앵두」 전문

꽃눈이 틀 무렵

이선아 지음

남광 / A5신 / 176면 / 2000원

어린이들은 점점 자라가면서 궁금한 점이 많아진다. 특히 국민학교 5, 6학년쯤 되면 이성에 눈을 뜨게 되면서 급격한 신체발달과 정신적 성숙으로 자기자신에 대한 갈등과 불안이 커지게 마련이다. 여드름이 나는 것을 고민한다든가 이성을 대하기가 쑥스러워진다든가 하는 성적 의구심은 그러므로 당연하다.

이 책은 어른들의 세계를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에서 올바른 지도와 교육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13편의 서로 다른 주제를 알맞은 동화로 엮어, 어린이 스스로 자신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조슈아의 비밀

데이비드 비숍프 지음 / 이창희 옮김

대교문화 / A5신 / 208면 / 2500원

컴퓨터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소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컴퓨터 공상과학소설.

주인공 데이비드는 얌전하고 수줍지만 컴퓨터를 어느 누구보다 좋아하는 미국 학생이다. 어느날 데이비드의 컴퓨터와 북미방공사령부 컴퓨터가 우연히 연결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모의전쟁 프로그램이 입력되고, 세계는 3차 대전의 핵전쟁 위기에 빠진다.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이길 때까지 멈추지 않는 컴퓨터 '조슈아'와 지구를 핵폭발 위기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용감히 싸우는 데이비드의 활약이 숨가쁘게 펼쳐진다.

댕기동자 가라사대

교육동화연구회 지음

글수레 / A5신 / 208면 / 2500원

한자의 기초과정을 어린이가 익히기 쉽게 동화로 엮어나간 책. 지리산 청학동에서 온 6살짜리 꼬마훈장이 여름방학 동안 서울의 한 동네아이들에게 「천자문」과 「사서삼경」 등을 가르쳐준다는 줄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문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꾸몄다.

우주만물과 모든 형상의 진리를 담아 인간수양의 바른 도리를 밝힌 「천자문」을 비롯해서 어린이들에게 지혜와 인격수양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고사성어, 「명심보감」의 내용을 재미있는 그림과 이야기로 엮어 책을 읽어가는 동안 한자에 대한 지식을 깨우칠 수 있게 했다.

까치섬의 아기꽃게

임신행 지음

문학세계사 / A5신 / 170면 / 2200원

만남의 소중함을 주제로 한 창작동화집, 좋은 친구를 가진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임을 깨우치게 하는 12편의 동화가 어린친구들에게 만남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도깨비 피리를 찾아 산속으로 떠나는 울남의 모험이야기는 환상적인 동화 속에서도 인간의 미묘한 갈등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고, 허황된 욕심과 경솔로 인해 자기가 다루던 서커스단 사자에게 물리고 만다는 「이걸 어째, 어째」는 오만과 겸손의 이중성을 지닌 인간의 심리를 어린이의 시각에 맞춰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참 이쁘다 그치?

조춘실 지음

연꽃선실 / A5신 / 174면 / 2500원

마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구어체로 엮은 불교구연동화 창작집. 8편의 생활동화는 모두 이야기마다 웃음을 자아내는 밝고 건강한 정신세계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부처님의 그윽한 가르침이 배어 있다.

반장이 되고 싶어 거짓말을 했던 유미가 엄마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잘못을 뉘우치는 줄거리의 「이상한 반장선거」를 비롯해서 「고모스님」 「남석이의 칠석날」 「꿀수박」 등 부처의 가르침과 연결된 8편의 동화가 어린들에게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심어준다.

슬픈 해바라기

김모세 지음

민서출판사 / A5신 / 224면 / 2500원

철민이는 학교성적은 언제나 꼴찌지만 컴퓨터와 미술, 음악에는 재능이 많은 아이다. 어느날 엄마와 고모와의 대화를 엿듣다가 자기가 친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무작정 집을 나와 거리를 헤매다 소매치기로 몰리기까지 하지만, 결국 친부모가 자기의 큰아버지였음을 알고난 후 다시금 길러준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줄거리.

비극적인 상황에서 아름답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여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이야기를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순정소설이다.

꼬마시인

오순택 지음

아동문예 / A5신 / 100면 / 2200원

어린이의 가슴속에 고여 있는 아름다운 생각들을 맑은 언어로 그려낸 동시 모음. 월간 「아동문예」에 연재했던 시들을 정리해 묶었다.

'목련' '똬리' '나비의 입' 등 어린이에게 가장 친근한 꽃과 곤충 · 새를 소재로 한 짤막한 시들이 자연의 품 속에서 지내던 어린시절의 추억을 끄집어내는가 하면 '할머니의 얼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 등 어린이가 느끼는 가족에 대한 이미지를 간결한 문장으로 전달하고 있다. 군더더기 없는 축약된 동시들이 동심의 세계를 투명하게 비춰준다.

에퍼의 꿈

안네 프랑크 지음 / 최의선 옮김

삼중당 / A5신 / 222면 / 2500원

「안네의 일기」로 유명한 안네 프랑크의 에세이와 동화를 한데 묶은 책. 나치의 공포 속에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일기와 동화 · 에세이로 기록했던 안네의 꾸밈없는 진실이 담겨 있다.

어린 시절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꿈속의 요정이 문득 자신의 양심이었음을 깨닫는 「에퍼의 꿈」을 비롯해서 「꽃파는 소녀」 「공포」 「하숙생」 등 14편의 동화와 16편의 에세이에는 안네 자신의 꿈과 낭만, 그리고 공포와 전율이 공존해 있다. 부록에는 프랑크의 일가를 뒷바라지했던 미프 히스 여사의 회고록 「추억의 안네 프랑크」를 담았다.

이대로 어른이 된다면

김형모 지음

십대들의 쪽지 / A5신 / 252면 / 3000원

"엄마는 항상 저의 일로 무척이나 걱정을 하십니다. 제 얼굴만 보면 한심스럽다는 표정이세요. 떨어지는 성적, 제 성적 때문에 분위기가 엉망인 집안, 솔직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싫습니다."

요즘 흔히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교육열로 인한 아이들의 심적 압박감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 책은 잘못 가고 있는 십대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의지를 심어주는 글을 주제별로 묶어 전달하고 있다. 웃고 떠들기보다는 함께 읽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해준다.

미샤네 외삼촌

유리 콜리네츠 지음 / 강민숙 옮김

영웅 / A5신 / 272면 / 3000원

소련에서 최고의 아동문학가로 꼽히는 콜리네츠의 자전적 소설. 열살이 채 안된 미샤라는 소년이 호방하고 재간이 많은 외삼촌을 통해 인생의 깊은 의미를 하나하나 터득해간다는 줄거리다.

외삼촌은 지금까지 살아오며 겪은 여러 경험을 어린 조카에게 또다른 감동으로 들려주면서 현실 속에 잠겨 있는 꿈을 조심스레 펼쳐보인다. '에트봐스' '물과 불과 구리의 관' '진실로, 진실로' 등등 얼핏 아무런 진기함이 없는 이야기 속에서 자연과의 교감, 어린이의 상상을 유쾌하게 보여주고 있다. 작가가 직접 그린 삽화도 이야기의 특이한 감동을 더해준다.

대한이 살았다

장수복 지음

고려문학사 / A5신 / 132면 / 1700원

앞을 못보고 들을 수 없으면서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높은 기개를 잃지 않았던 심영식여사의 감동적인 생애를 기록한 전기. 3 · 1운동 때 류관순열사와 함께 감옥에 갇혀 애국의 노래 「대한이 살았다」를 작사하기도 했다.

1896년 개성에서 태어난 심영식여사는 네살 때 이질에 걸려 두 눈을 잃은 후, 맹아학교에 들어가 신학문과 신앙을 가졌다. 3 · 1운동 때 일본경찰에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두눈이 멀었다고 마음까지 멀었겠느냐"며 호통을 치며 독립정신을 지켰다는 심영식여사의 일생을 통해 건강한 정상인도 이뤄낼 수 없었던 고귀한 정신을 배울 수 있다.